

「탐라별곡」의 삼성혈 신화 수용과 변주

김 아 연*

1. 머리말
2. 삼성혈 신화의 예비적 검토
3. 「탐라별곡」의 삼성혈 신화 수용과 변주
 - 1) 삼성혈 신화의 수용 계기 : 제주 사회가 직면한 문제 인식
 - 2) 삼성혈 신화의 수용과 변주 : 제주 백성의 방향과 가치 제시
4. 맺음말

<국문초록>

제주목사겸방어사(濟州牧使兼防禦使) 정언유(鄭彦儒, 1687~1764)는, 제주 순력 체험을 토대로 기행가사 「탐라별곡(耽羅別曲)」을 지었다. ‘신화의 현재화’라는 관점에서 「탐라별곡」의 삼성혈 신화 수용과 변주를 살펴본 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글은 작가가 제주 백성이 당대에 직면한 문제, 곧 자연재해·기근·여역 및 공납 폐단에 대한 대안으로 「탐라별곡」에 삼성혈 신화를 호명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글은 「탐라별곡」의 54행, 56~60행이 『고려사(高麗史)』 삼성혈 신화의 결말에 새롭게 추가된 이야기임을 알았다. 이 글은 두 이야기가 「탐라별곡」이 내적 필연성을 갖추게 하여 제주 백성에게 흡입력 있는 스토리를 제공하고, 제주 백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구해야 할 가치를 화두로 던지고 있음을 알았다. 이러한 점에서 「탐라별곡」에 호명된 삼성혈 신화는 정언유 시대 제주 사회 공동체의 ‘안내자’로서 ‘유효한’ 신화임을 알았다. 아울러 이 글

*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강사(redindi11@naver.com)

은 변주된 삼성혈 신화가 가사의 개방성과 매체로서의 영향력에 의해 「탐라별곡」에 기록되어 당대에 ‘유효한 신화’로서 존재할 수 있었음을 살폈다.

* 주요어: 탐라별곡, 제주 순력, 삼성혈 신화, 수용, 변주

1. 머리말

조선시대에 제주(濟州)는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의 관할 구역으로, 국마·감굴 공급지이자 절도 유배지이자 왜구 방어 거점지였다. 제주는 전라감영(全羅監營)에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제주의 정치적·행정적·군사적·자연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라도관찰사가 일 년에 두 차례 제주를 순력하는 일이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정3품 제주목사(濟州牧使)는 종2품 전라도관찰사의 업무 중 하나인 제주 순력 업무를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목사는 전라도관찰사를 대신하여 일 년에 두 차례 제주목(濟州牧)·대정현(大靜縣)·정의현(旌義縣) 등 삼읍(三邑)을 순회하였다.

정언유(鄭彦儒, 1687~1764)는 1749년(영조 25) 음력 7월 25일부터 1751년(영조 27) 음력 2월 29일까지 제주목사겸방어사(濟州牧使兼防禦使, 이하는 제주목사)를 지냈다.¹⁾ 정언유가 거행한 제주 순력의 시기, 경로, 업무, 행사 등은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현재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이것은 정언유가 제주 순력 후에 지은 기행가사 「탐라별곡(耽羅別曲)」을 통해 짐작할 따름이다.

김새미오는, 「탐라별곡」의 핵심은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제주 구화에 있다고 언술하였다.²⁾ 그런데 「탐라별곡」의 작자이자 1인칭 화자인 정언유는

1) 정언유의 제주목사겸방어사(濟州牧使兼防禦使) 재임 기간은 『承政院日記』 冊1046, 英祖 25年 7月 辛未(25日); 『承政院日記』 冊1065, 英祖 27年 2月 丁酉(29日); 『承政院日記』 冊1066, 英祖 27年 3月 庚子(3日); 『承政院日記』 冊1070, 英祖 27年 6月 丁酉(2日); 김아연, 「「탐라별곡」에 나타난 제주사회 문제의 양상과 대응」, 『용봉인문논총』 56,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87쪽 참조.

2) 김새미오, 「「탐라별곡」에 표현된 제주목사의 책무와 그 시선」, 『제주도연구』 54, 제주학회,

제주 구홀 장면에서 제주의 삼성혈 신화(三姓穴神話)를 언급한다. 삼성혈 신화는 탐라(耽羅)의 개벽 신화이자 고대국가 탐라국(耽羅國)의 건국 신화이자 제주의 고씨(高氏)·양씨(梁氏)·부씨(夫氏) 등 세 성씨의 시조 신화이다. 곧 삼성혈 신화는 고대 탐라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삼성신과 제주 사람들의 기원, 제주 사람들을 둘러싼 세계를 설명하는 신성한 이야기인 것이다.

‘과거의 이야기’인 삼성혈 신화는 「탐라별곡」에 수용되어 이야기의 생명력을 연장하였다. 이명현은 “신화는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변하면 그에 맞는 변형과 재해석이 필요하다.”³⁾고 언술하였다. 송효섭은 “인문학의 어떤 문제도 현재의 경험적 상황과 유리될 수 없다면, 과거의 것으로 간주했던 신화도 현재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신화를 과거에 고착된 이야기가 아닌 현재에 진행되는 사유의 운동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⁴⁾고 언급하였다. 카렌 암스트롱(Karen Armstrong)은 “절대적으로 유일하고 정설인 신화는 없다. 상황이 변함에 따라, 이야기 속의 영원한 진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신화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⁵⁾고 언지하였다. 이처럼 이명현, 송효섭, 카렌 암스트롱은 ‘신화의 현재화’를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이명현, 송효섭, 카렌 암스트롱의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 이 글은, ‘자연재해·기근·여역 및 공납 폐단’이라는 문제가 극심한 정언유 시대에 「탐라별곡」이 삼성혈 신화를 수용·변주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탐라별곡」에 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탐라별곡」의 작가, 창작 연대, 갈래, 이본, 단락 구성, 내용, 성격, 애민의식, 문학사적 의의 등을 고찰한 연구⁶⁾, 둘째, 「탐라별곡」의 공간 및 공간

2020, 7쪽.

3) 이명현, 「《신과 함께》 신화편에 나타난 신화적 세계의 재편-신화의 수용과 변주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40, 한국구비문학회, 2015, 182쪽.

4) 송효섭, 「서문」, 『뫼토세미오시스-매체, 신화, 스토리텔링』, 한국문화사, 2019, iv 쪽.

5) 카렌 암스트롱 지음, 이다희 옮김, 『신화의 역사』(11쇄), 문학동네, 2021, 18쪽.

6) 윤석창, 「「탐라별곡」 연구」, 『명지어문학』 14, 명지어문학회, 1982; 윤치부, 「〈탐라별곡〉의 구성과 표현」, 『논문집』 24, 제주교육대학교, 1995; 김남형, 「정언유의 「탐라별곡」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3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김기영, 「〈탐라별곡〉의 문학적 실상을 살핌」, 『충청문화연구』 23,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20; 김아연, 앞의 논문.

의식에 관한 연구⁷⁾, 셋째, 가사문학사적 측면에서 18세기 가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의 일부로서 활용한 연구⁸⁾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탐라별곡」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는 「탐라별곡」에 관한 개괄적인 검토부터 공간 및 공간의식에 관한 연구까지 연구 영역이 확장되었고, 18세기에 지어진 다른 가사 작품과 더불어 공시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탐라별곡」과 삼성혈 신화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 성과는 미비한 편이다. 다만, 김아연이 「탐라별곡」에 재현된 제주 사회의 문제와 그 대응을 구명하는 과정에서 작가이자 화자인 정언유가 제주 백성에게 전달한 “교훈의 기저에는, 정언유 시대에 제주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三聖神 소스느後 民俗 이 淳和”하여 제주백성이 뿌리내렸던 “넛時節”, “和平準 別天地”, “조흔씨 그 世界”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의식이 내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⁹⁾는 언술만 있을 뿐, 「탐라별곡」과 삼성혈 신화의 관계를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글은, 논의의 예비적 단계에서 삼성혈 신화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신화의 현재화’라는 관점에서 「탐라별곡」이 삼성혈 신화를 수용·변주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가능한 까닭은, 가사가 시조·판소리·설화·고소설 등 다른 갈래의 작품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開放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 글은 과거의 이야기인 삼성혈 신화가 정언유 시대의 신화로 확장되었고, 이로써 삼성혈 신화가 정언유 시대에 제주 사회 공동체의 결속과 통합을 다지는 기능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 글은 「탐라별곡」의 선본(善本)으로 알려진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2020: 김새미오, 앞의 논문.

7) 박수진, 「〈탐라별곡〉에 드러난 제주의 문화 공간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32, 한국시가문화학회, 2013; 서주연, 「「탐라별곡」의 공간의식에 따른 서술 특징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168, 국어국문학회, 2014.

8)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의 작품세계와 시대적 변모양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이형대, 「17·18세기 기행가사와 풍경의 미학」, 『민족문화연구』 4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안혜진, 「18세기 가사를 통해 본 경향사족간 의식의 거리」, 『한국고전연구』 15,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9) 김아연, 앞의 논문, 2020, 113쪽.

관 소장 필사본 『우현집(迂軒集)』 곤(坤) 소재 「탐라별곡」(이하 동산도서관본)¹⁰⁾을 연구 대상으로 활용할 것이다.

2. 삼성혈 신화의 예비적 검토

1451년(문종 1)에 완성된 『고려사(高麗史)』 권57, 지리지(地理志)(이하는 『고려사』)에는 탐라현(耽羅縣)의 삼성혈 신화¹¹⁾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탐라현(耽羅縣)은 전라도(全羅道) 남쪽 바다 가운데 있다. 그곳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태초에 이곳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세 신인(神人)이 땅에서 솟아났다(주 : 그 주산(主山)의 북쪽 기슭에 구멍이 있는데, ‘모흥(毛興)’이라고 한다. 이곳이 그 땅이다). 맏이는 양을나(良乙那)라고 하였고, 둘째는 고을나(高乙那)라고 하였으며, 셋째는 부을나(夫乙那)라고 하였다. 세 신인은 거친 땅에서 사냥하여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고 살았다. 하루는 자줏빛 진흙으로 봉해진 나무 상자가 바다에 떠다니다가 동쪽 바닷가에 닿은 것을 보고 가서 열어 보니, 상자 안에는 석함(石函)이 있고 붉은 띠에 자줏빛 옷을 입은 사자(使者)가 따라 나왔다. 석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세 처녀, 망아지, 송아지 및 오곡 종자가 나왔다. 그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日本國)의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王)이 이 세 따님을 낳으시고 이르시되, “서쪽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산에 신자(神子) 세 사람이 내려와서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다.”고 하시면서 신(臣)에게 명령하시어 세 따님을 모시고 가게 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마땅히 세 따님을 배필로 삼고 대업을 이루소서.” 하고는 그 사자는 구름을 타고 홀연히 가 버렸다. 세 신인은 나이순으로 세 처녀를 나누어 아내로

10) 「耽羅別曲」,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迂軒集』 卷坤 (<http://dcollection.kmu.ac.kr/jsp/common/DcLoOrgPer.jsp?sltItemId=000000007015>, 검색일: 2023.5.30.)

11) 이 글은 『고려사』 지리지(이하는 고려사)에 수록된 삼성혈 신화를 검토하였다. 『고려사』는 국가에서 편찬한 역사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성혈 신화는 『고려사』 외에도 『고씨족보』에 수록된 「성주고씨전」 삼성혈 신화, 「서세문」 삼성혈 신화도 현전한다. 한편, 삼성혈 신화의 세 이본인 『고려사』에 수록된 삼성혈 신화, 「성주고씨전」 삼성혈 신화, 「서세문」 삼성혈 신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진희, 「조선초(朝鮮初) 제주(濟州) <삼성신화(三姓神話)>의 문자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참조.

삼고, 샘이 달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가서 활을 쏘아 땅을 정하였는데, 양을나(良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제일도(第一都)'라고 하였고, 고을나(高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제이도(第二都)'라고 하였으며, 부을나(夫乙那)가 사는 곳을 '제삼도(第三都)'라고 하였다. 처음으로 오곡을 파종하고, 땅아지와 송아지를 길러 나날이 부유해지고 백성이 많아졌다.¹²⁾

삼성혈 신화는 땅에서 솟아난 삼성신과 바다에서 건너온 일본국(日本國) 세 공주가 결합한 이야기이다. 곧 삼성혈 신화는 지중용출(地中湧出) 화소와 해상표착(海上漂着) 화소가 결합한 이야기¹³⁾인 것이다.

삼성신은 원주민이고, 일본국의 세 공주는 이주민이다. 수렵 생활을 하던 삼성신은 일본국의 세 공주가 가져온 오곡의 종자, 땅아지, 송아지로 농경 생활, 목축 생활을 시작하였다. 삼성신의 정착 생활로 탐라에는 우마와 자손이 번성하였다. 여기에서 일본국의 세 공주가 가져온 오곡의 종자, 땅아지, 송아지는 해양에서 유입된 고대 문명으로, 탐라에 우마와 자손이 번성하는 데 기여한 선진 문물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일본국의 세 공주는 삼성신의 대업에 조력하고 탐라에 풍요를 가져다준 여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삼성혈 신화는 삼성신과 제주 사람들의 기원, 제주 사람들을 둘러싼 세계를 설명하는 이야기이다. 삼성혈 신화는 남신인 삼성신과 여신인 일본국 세 공주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수렵문화에서 농경문화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두 문화의 결합은 생산력이 증대되었고, 이를 토대로 부족연맹사회를 형성하였으며, 나아가 고대국가 탐라국의 기초를 마

12) 耽羅縣, 在全羅道南海中, 其古記云, 太初無人物, 三神人從地聳出(註: 其主山北麓有穴曰毛興是地也), 長曰良乙那次曰高乙那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皮肉食, 一日見紫泥封藏木函浮至于東海濱, 而開之函內, 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石函出現青衣處女三及諸駒犢五穀種, 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嶽降神子三人, 將欲開國, 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以來爾, 宜作配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年次分娶之就甘土肥處射矢卜地, 良乙那所居曰第一都, 高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始播五穀且牧駒犢曰就富庶(『高麗史』卷57, 志11, 地理2, 羅州牧, 耽羅縣).

13)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jeju/dir/GC00701259?category=%EB%B6%84%EC%95%BC&depth=3&name=%EA%B5%AC%EB%B9%84%20%EC%A0%84%EC%8A%B9&search=%EA%B5%AC%EB%B9%84%20%EC%A0%84%EC%8A%B9%20%B7%EC%96%B8%EC%96%B4%20%B7%EB%AC%B8%ED%95%99%2F%EA%B5%AC%EB%B9%84%20%EC%A0%84%EC%8A%B9>, 검색일: 2023.6.2.)

련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과 같이 『고려사』에 기록된 삼성혈 신화는 삼성신, 곧 “세 신인이 땅에서 솟아났다(三神人從地聳出)”고 서술하다가, “서쪽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산에 신자(神子) 세 명이 내려왔다(西海中嶽降神子三人)”고 서술한다. 곧 『고려사』의 삼성혈 신화에서 삼성신의 출현지가 땅에서 하늘로 변이(變移)된 것이다. “한반도 고대국가 건국주의 등장은 대부분 하늘(천상계)에서 비롯된다. 부족연맹을 이루고 있던 기존 세력을 진압하여 왕권을 공고히 하려면 하늘의 권위가 필요했다. 그래서 단군신화부터 건국 주인공은 하늘에서 출자(出自)한다.”¹⁴⁾는 허남춘의 설명으로 미루어 보면, 천강(天降) 화소는 삼성신에게 탐라국 건국 주체의 자격과 하늘의 신성성(神聖性)을 부여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쪽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산”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간 지대로 신성한 지역이고, 이 산에 내려온 삼성신은 하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늘을 대신하여 탐라 사람들을 통치하는 초월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육지의 대표적인 건국 신화 중 하나인 고조선(古朝鮮) 단군신화(檀君神話)에서 환웅(桓雄)이 내려온 태백산(太白山) 정상의 신단수(神壇樹)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이고, 환웅은 하늘의 존재이고 그 계보를 물려받은 단군(檀君)이 고조선을 통치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았던 상황과 유사하다. 이처럼 삼성혈 신화에 천강 화소가 나타난 배경에 대해 허남춘은 탐라국이 12세기 초¹⁵⁾ 이후에 중앙 정부의 통치를 받으면서 탐라국의 건국 신화인 삼성혈 신화가 육지 쪽 천강 신화에 동화된 것이라고 언설하였다.¹⁶⁾

14) 허남춘, 「제주 신화 속의 해양교류와 해양문화」, 『탐라문화』 5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 10쪽.

15) 여기에서 ‘12세기 초’는 구체적으로 1105년(숙종 10)으로, 탐라국이 고려의 군현에 편입되어 탐라군으로 개편된 시기를 말한다.

16) 허남춘, 앞의 논문, 9쪽. 한편, 천혜숙은 “사성(賜姓)이 늘어나는 중세에 이르면 천강하는 성씨시조는 드물어지고 (중략) 성씨시조의 천강이 드물게 된 것은 전제군주의 시대에 일 반 성씨의 시조가 왕가의 신성과 대등한 신화적 위상에 놓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천혜숙, 「설화의 이해」,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2쇄), 도서출판 월인, 2005, 93쪽)고 언급한 바 있다. 천혜숙의 이러한 견해에 의거하여, 양씨(梁氏)·고씨(高氏)·부씨(夫氏) 등 삼성(三姓)의 성씨 시조 신화인 삼성혈 신화는 문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천강 신화에 동화되어 일

한편, 조동일의 지적과 같이, 건국 영웅이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투쟁을 벌여야 하는데 삼성혈 신화에는 원주민인 삼성신과 이주민인 일본국 세공주 간 갈등이나 양을나·고을나·부을나 등 탐라국 건국 세대의 경쟁이 배제되고 화합만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조동일은 목가적인 평화를 바라는 삼성신 후손들의 마음이 작용한 결과라고 파악하였다.¹⁷⁾ 여기에서 삼성혈 신화가 제주 사회의 공동체를 통합·결속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삼성혈 신화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제주 백성의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삼성혈 신화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제주 사회 공동체의 통합·결속이 강해진다고 하겠다.

3. 「탐라별곡」의 삼성혈 신화 수용과 변주 양상

「탐라별곡(耽羅別曲)」이라는 제목은 '탐라(耽羅)에 관한 노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탐라는 제주의 옛 이름이다.

「탐라별곡」의 창작 연대는 1750년대로 추정된다.¹⁸⁾ 「탐라별곡」의 형식은 4음보 연속체로 되어 있고, 그 길이는 120행이다. 「탐라별곡」의 서사 단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1 대단락: 제주목사 부임 과정 및 부임지 제주 소개

- 제1 소단락: 제주의 역사 및 조선 조정의 지방관 파견 내력(1~4행)
- 제2 소단락: 제주의 지리 및 삼읍(5~8행)
- 제3 소단락: 제주목사 임명 및 영해에서 제주목 관아로의 이동(9~17행)
- 제4 소단락: 관덕정에서의 제주목사 부임 행사(18~20행)

제2 대단락: 제주 순력

- 제5 소단락: 연희각에서의 순력 출발 및 해방 순력(21~80행)

반 성씨의 시조 신화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7) 조동일, 「특집」 탐라국 건국서사시를 찾아, 『제주도연구』 19, 제주학회, 2001, 84쪽.

18)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주27 참조.

- 제6 소단락: 구진 점검(81~84행)
- 제7 소단락: 취병담, 등령구 등 승지 유람(85~92행)
- 제8 소단락: 산마장 순점(93~98행)
- 제9 소단락: 녹산장 순력(99~101행)
- 제3 대단락: 제주 순력에서의 복귀
 - 제10 소단락: 복귀 및 와선각에서의 각침(102~106행)
 - 제11 소단락: 망경루에서 임금과 제주 백성 걱정(107~112행)
- 제4 대단락: 목민관으로서의 고뇌와 선정 포부
 - 제12 소단락: 목민관의 고뇌 해소를 위한 음주 및 선정 의지 표출(113~120행)¹⁹⁾

위와 같이, 「탐라별곡」은 4개 대단락, 12개 소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탐라별곡」의 내용은 작가이자 화자인 정언유의 제주목사 부임 과정 및 부임지 제주 소개(제1 대단락), 제주의 해방·구진·취병담·등령구·산마장·녹산장 등을 순회하는 순력(제2 대단락), 제주 순력에서의 복귀(제3 대단락), 목민관으로서의 고뇌와 선정 포부(제4 대단락)로 이루어져 있다. 가사의 이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사, 본사, 결사의 구성 방식을 적용하면, 제1 대단락은 서사, 제2·3 대단락은 본사, 제4 대단락은 결사이다.

이를 토대로 이 글의 3장에서는 「탐라별곡」에 삼성혈 신화가 수용·변주된 양상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삼성혈 신화의 수용 계기 : 제주 사회가 직면한 문제 인식²⁰⁾

정언유가 제주목사에 부임하기 전에 제주는 경신대기근(1670~1671), 계정대기근(1713~1717)²¹⁾ 등 기후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게다가 태풍

19) 이 글에 제시한 「탐라별곡」의 서사 단락은 김아연, 앞의 논문, 2020, 92쪽 <표>를 수정·인용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20) 이 절의 몇몇의 단락은 이 글에서 논의하려는, 제주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부득이 필자의 앞 논문인 「「탐라별곡」에 나타난 제주사회 문제의 양상과 대응」, 『용봉인문논총』 56,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의 일부를 정리 및 보완하기로 한다.

21) 계정대기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오진, 『조선시대 제주도의 이상기후와 문화』, (주)푸른길, 2018, 245~255쪽 참조. 한편, 명월만호(明月萬戶) 이정무(李廷茂, 1701~?)는 영조 국장

과 같은 풍재(風災)까지 겹쳐 굶주림, 역병 등 제주 백성이 입는 피해는 극심하였다. 또한 기후 재해로 인해 제주 백성의 수가 감소한 까닭에, 살아남은 자들이 지어야 할 공납의 의무, 역의 의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커져 갔다. 기후 재해로 인한 연쇄적인 문제의 양상은 「탐라별곡」에도 재현되어 있다.

다음의 (1)은 「탐라별곡」의 21~40행으로 제2 대단락 제5 소단락의 일부이고, (2)는 81~84행으로 제2 대단락 제6 소단락이다.

(1) 延曦閣 잠간 쉬여 巡歷길 밧비 나서 / 海方도 돌너보며 風俗도 살피
 보니 / 어엿불스 우리 百姓 무슴 일로 偏苦호여 / 衣食이 艱窘원니 興味
 가 잇실 손가 / 八陽 足踏 계우 호여 薄田을 耕作호니 / 차른 호미 저근
 보십 辛苦히 밧갓고야 / 五六月 盡力호여 西成을 바라더니 / 造物이 忌劇
 호고 天時도 그릇되여 / 惡風과 甚호 霖雨 히히마다 孔極호니 / 田畝을
 도라보면 兵馬로 ぞ발론 닷 / 各穀을 둘러보면 鐵鞭으로 ぞ쳐는 듯 / 나
 문 이삭 주어너니 빈 舛풀뿐이로다 / 무어슬 公債 갓고 엇디 구려 사라
 날고 / 거러거리 모든 飢民 駕轎 잡고 니른 말리 / 설러을 슌 올리 性命
 나라히 달려시니 / 流民圖 옮겨다가 人君 겨신 덕 알외고져 / 가족옷 풀
 戰笠니 이 무스 衣冠이며 / 모밀밥 橡實粥이 괴 무산 飲食일고 / 歲歲에
 國恩 입어 羅鋪移轉 虛費호니 / 請粟도 늦치 업고 生計도 茫然호니

(2) 九鎮이 버러 잇서 防守을 申飾호미 / 兵器도 精巧호고 武士도 壯健
 호니 / 異國이 여어본들 나라 못 건너리니 / 軍餉이 업건마는 天塹이 밧
 분지라

(1776, 정조 즉위년) 때 능력에 참여한 후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송축추모가사 「달고사(達告辭)」를 지었다. 「달고사」의 작품 길이는 101행에 달하는데, 그중 5~15행의 “已去 癸甲大殺年을 두로헤니 六十四年 / 飢寒의 汨沒호야 父母妻子 義모르코 / 人相食 되어갈제 그니라 救흥손가 / 洪公 輔政校理時에 全羅御使[史] 닳렛자가 / 濟州牧 活民請穀 狀啓未達 九重前에 / 風耳의 묻져알고 可憐緣由 急告호야 / 肅宗朝 넘은德을 急急피 베퍼내여 / 二萬斛 御白米을 歲前의 轉漕호야 / 癸甲春 飢死民을 一一히 건져내여 / 今時스지 不忘聖恩 萬民子孫 傳誦호니 / 河海스튼 너른德을 千秋에 니즐손가”는 계정대기근 때 제주 백성을 구휼한 숙종(肅宗)의 업적이 재현되어 있다. 계정대기근 때 제주의 상황과 조정의 조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아연, 「영조 국장과 이정무의 「달고사」」, 『영주어문』 54, 영주어문학회, 2023 참조.

위의 (1)은 화자가 해방을 둘러보면서 제주 백성의 곤궁한 의식(衣食)에 관해 보고 들은 것을 언술한다. 제주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용탈(溶脫) 현상이 일어나서 밭에 유기질이 결핍될 수 있다. 제주 백성은 수해(水害)에 대비하기 위해 소나 말의 분노로 유기질을 공급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바람 또는 바람(이하는 바람)[八陽]을 시행하였다. 또한 제주는 기온이 높아 수분 증발이 잘 되기 때문에, 토양의 수분 함량이 낮아 땅이 건조해진다. 게다가 제주에는 강풍이 불기 때문에, 씨앗이 바람에 흩날리기도 한다. 제주 백성은 한해(寒害), 풍해(風害)에 대비하기 위해 파종 후에 소나 말을 밭에 몰고 나와 종일 달리게 하여 그 땅을 단단하게 하는 밋볼림[足踏]을 하였다. 이처럼 제주 백성은 제주의 전통 농법인 바람과 밋볼림으로써 메마른 밭[薄田]을 겨우 경작하고, 짧은 호미와 작은 보습으로 고생스럽게 매풍 가꾸었다. 그리하여 제주 백성은 농번기인 오뉴월에 수확[西成]을 바라다.

그런데 이태진의 견해와 같이, 1492년(성종 23)부터 1750년(영조 26)까지 한반도는 기후사적으로 소빙기(小氷期, Little Ice Age)에 해당하여 한랭하였다.²²⁾ 이 시기에 이상기후가 집중되었고, 흉년, 기근, 여역(癘疫)·우역(牛疫) 등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다.

작가의 제주목사 재임기도 소빙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화자는 이 시기에 대해 조물주의 시기가 심하고, 하늘이 도움을 주는 때도 그릇되었다고 언술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는 매해 여름 태풍(惡風)의 경로에 들어 있고, 장마(霖雨)가 심하게 내린다. 여기에서 작가가 하늘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때와 그렇지 않은 때가 있는 역동적인 존재로 인지하였고, 하늘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극적 사건으로 태풍, 장마를 인식하였음을 추고할 수 있다.

김석익(金錫翼) 『탐라기년(耽羅紀年)』 권3의 영조(英祖) 25년조(條)에 “추팔월에 큰바람이 불어 흉년이 들었다.”²³⁾고 기록된 바와 같이, 작가가 제주목사에 재수된 그해 음력 8월에는 가을 태풍이 불어 풍해를 입었다. 또한 제주는 다공질 현무암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장마철에 지하로 스며든 빗물이 범람하면 수해를 입었다.

22) 이태진, 『새韓國史-선사시대에서 조선후기까지-』, 까치, 2012, 313~318쪽.

23) 秋八月, 大風年荒(金錫翼, 『耽羅紀年』 卷3, 英祖 25年條).

그 결과, 밭은 병마가 짓밟은 것처럼 황폐해졌고, 남은 이삭은 쇠채찍으로 때린 것처럼 빈 껍질뿐인 상태로 고사하였다. 결국 제주 백성은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한 까닭에, 환곡(還穀)의 공채(公債)를 추수 후에 갚기 어려웠고 구황작물인 메밀·도토리로 만든 메밀밥[모밀밥]·도토리죽[橡實粥]을 먹으면서 기근을 견뎌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749년(영조 25) 음력 12월 30일에 전라도 임피읍 나리포창에서 제주로 이전한 구휼미²⁴⁾마저 소진하였다. 게다가 1750년(영조 26) 음력 9월에 전국에서 67,869명이 여역으로 사망하였는데, 그중 882명이 제주 백성이었다.²⁵⁾ 그러므로 해방에서 만난 기민(飢民)들은 화자의 가마를 부여잡은 채, 기근에 시달리는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유민도(流民圖)에 그려 임금께 알릴 것을 화자에게 요청한다.

한편, 위의 (2)와 같이, 화자는 구진(九鎭)에서 군사행정을 점검하던 중에 군향(軍餉)이 고갈되었음을 파악한다. 실제로 작가는 제주목사 재임기에 군향이 고갈된 상황을 장계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승정원일기』 1750년 음력 9월 5일 기사의 일부이다.

조현명(趙顯命)이 아뢰기를,

“제주목사의 장계가 도달하였습니다. 섬 안의 삼읍에 1년 동안 지급한 곡식이 2,300여 석(石)에 달하는데, 군자창(軍資倉)·상평창(常平倉)의 곡식이 이미 고갈된 까닭에 구휼곡 2,720여 석을 이전해 주면 두 창에 이관하여 평상시에 모곡(耗穀)을 취하여 공료(公料)에 보태고, 위급할 때 군향(軍餉)으로 쓸 계획이며, 이후 흉년이 들더라도 구휼곡 이전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시행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제주는 본래 흉작이 될 때가 많은데, 멀리 떨어져 있어 조정의 이목이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만약 매년 구휼곡 이전을 청하면, 연해의 고을에서도 필시 곤궁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계에 의

24) 命以賑穀三千石浮海，救濟州民，從牧使鄭彥儒之請也(『英祖實錄』卷70，英祖 25年 12月 甲辰(30日)).

25) 是月，癘疫死亡，京畿三千三百八十二名，關東五百七十二名，湖西六千二百六十六名，湖南一萬六千七百五十二名，嶺南一萬七百三十九名，海西一萬一千三百七十一名，關西一千八百五十三名，北關一萬二千一百四十一名，江都二千三百九十一名，松京一千五百二十名，濟州八百八十二名(『英祖實錄』卷72，英祖 26年 9月 己巳(30日)).

거하여, 이후로는 혹시 흉년이 들더라도 구휼곡 이전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령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²⁶⁾

정언유 시대에는 제주에서 보낸 장계가 한성에 도착하는 데 한 달여 정도 소요되었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의 장계가 조정에 보고된 때는 1750년 음력 9월 5일이다. 이에 따라 작가가 장계를 보낸 시기를 1750년 음력 8월 초 무렵으로 소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주의 군향이 고갈된 시기는 작가가 조정에 장계를 보낸 시기보다 앞선 1750년 음력 8월 초 이전으로 추단할 수 있고, 1750년 제주의 보리 수확량이 당시의 기근을 극복할 정도가 아니었음을 추고할 수 있다.

제주 삼읍의 백성에게 지급한 구휼곡 2,300여 석의 출처는 1749년 음력 12월 30일에 조정에서 보낸 나리포창 구휼곡 3,000석으로 추정할 수 있다. (1)의 “歲歲에 國恩 입어 羅鋪移轉 虛費 흔니”는 이를 입증해준다. 한편, 나리포창 구휼곡 3,000석을 소진한 상황에서 작가는 조정에 곡식을 재차 요청하는 일에 대해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請粟도 늦치 업”다고 발화한다.²⁷⁾ 또한 군자창·

26) 顯命曰, 此乃濟州牧使狀達也, 島中三邑一年公下之穀, 至於二千三百餘石, 而軍資常平倉穀, 皆已匱竭, 請以移轉穀二千七百二十餘石, 移付兩倉, 平時則取耗以補公料, 緩急則作爲軍餉, 此後設有凶歲, 不請移轉云, 此事既有前例, 則不得不許施, 而濟州, 本來失稔時多, 而處在遐遠, 朝廷耳目, 不能及焉, 若每請移轉, 則沿海諸邑, 亦必受困, 依狀請此後, 則雖或失稔, 勿許移轉, 似好矣, 令曰, 依爲之(『承政院日記』 冊1060, 英祖 26年 9月 甲辰(5日)). 한편, 필자는 앞 논문에서 영의정 조현명의 보고를 간접 인용하였는데, 1750년(영조 26) 음력 9월 5일에 조정에서 정언유의 장계를 받았지만 구휼곡 이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오역(誤譯)하였다(김아연, 앞의 논문, 2020, 101쪽). 이 글은 오역을 바로잡아 논의를 보완함을 밝힌다.

27) 「탐라별곡」 39~40행의 “歲歲에 國恩 입어 羅鋪移轉 虛費 흔니 / 請粟도 늦치업고 生計도 茫然 흔니”과 81~84행의 “九鎭이 버러잇서 防守을 申飾 ㅎ미 / 兵器도 精巧 ㅎ고 武士도 壯健 ㅎ니 / 異國이 여여분들 ㄴ라 못건너리니 / 軍餉이 업건마는 天塹이 밋분지라”에 재현된 상황으로 미루어, 「탐라별곡」의 창작 연대를 적어도 1750년(영조 26) 음력 8월 초 무렵으로 소급할 수 있다. 1750년(영조 26) 음력 8월 초 무렵은 이 글에서 작가가 곡식 이전 추가 요청 건(件)으로 장계를 보낸 시기로 추정하는 때이다. 이 글의 주2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작가가 보낸 장계는 1750년 음력 9월 5일에 조정에 보고되었다. 이 장계에는 구휼곡 이전에 대한 요청, 구휼곡의 활용 계획, 향후 구휼곡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조건 등이 언급되어 있다. 그중 향후 구휼곡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조건은 「탐라별곡」 40행의 “請粟도 늦치업”다는 대목과 연결된다.

상평창의 곡식까지 고갈되어 “生計도 茫然흔니” 작가는 제주목사로서 제주 기민을 살리기 위해 장계에 “이후 흉년이 들더라도 구휼곡 이전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언술하였다. 이 언술로써 작가는 구휼곡 이전을 조정에게 간곡히 요청하였다. 작가의 요청에 따라 조정에서는 구휼곡 이전을 결정하였다. 다음은 「탐라별곡」의 41~44행으로, 제2 대단락 제5 소단락의 일부이다.

牧子 一族 鮑作 구실 이에서 더 설우며 / 船格의 貿易 무리 괴 안이 難
堪흔가 / 滄溟이 限隔흔고 邦禁이 嚴截흔니 / 살 곳에 못 가기는 紇干山
언 식 갖도다

조선 조정은 공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1629년(인조 7) 음력 8월 13일부터 1823년(순조 23) 음력 2월 24일까지 출륙금지령[邦禁]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제주 백성은 육지로 마음껏 진출하지 못한 채, 활동 영역이 제주로 국한되었다. 정언유 시대에 기근·여역으로 제주 백성의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때 살아남은 제주 백성은 신역(身役)²⁸에 시달렸다. 국영 우마를 기르는 목자(牧子)의 한 무리는 전복·오징어를 잡는 포작(鮑作) 구실도 해야 해서 서러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포작 중에는 진상선의 노를 짓는 선격(船格)으로 차출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선격으로 차출되면, 진상품 수송 과정에서 태풍과 돌풍 등 이상기후로 해난 사고를 겪기도 하고 목숨이 위태로워지기도 하여 난감하였다. 이에 따라 화자는 출륙금지령과 공납의 폐단으로 인해 제주에 고립된 제주 백성을 “紇干山 언 식”에 비유한다. 다음은 「탐라별곡」의 104~106행으로, 제3 대단락 제10 소단락의 일부이다.

悄悄히 도러와 와서 臥仙閣의 비겨러니 / 無端흔 춘 비발암이 橘園에
셔 릴어느니 / 시음으로 자던 꿈을 놀느 썩여 이러느셔

제주에는 집마다 귤림(橘林)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주 백성은 “洞庭橘”을 비롯한 감귤을 수탈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주강현의 설명과 같

28) 조선시대 제주 백성의 신역(身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오진, 앞의 책, 164~165쪽 참조.

이, “매년 7~8월에 군관들이 촌가를 순시하며 귤유(橘柚)가 있는 곳에서 붓으로 하나하나 점을 찍어 장부에 기록하고 가을이 되어 귤이 익는 날에 장부와 대조하여 수납하였다. 바람과 비에 손상이 되거나 까마귀나 참새가 쪼아 먹으면 집주인이 책임지고 대납해야 했다. 해충의 피해를 입거나 바람으로 귤이 떨어져서 그 숫자를 채우지 못했을 때에도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었”²⁹⁾라고 한다. 이에 따라 민가에서는 감귤 생산을 꺼렸다. 그리하여 민가에서는 감귤나무가 나면 끓는 물을 부어 감귤나무를 죽이기도 하였고³⁰⁾, 감귤나무 그루에 상어 뼈를 박아놓거나 송곳으로 구멍을 내고 후춧가루를 넣어 감귤나무를 죽이기도 하였다.³¹⁾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 조정에서는 제주에 귤원을 직접 조성하여, 제주목사의 관리 하에 제주 백성에게 과직역을 부담시키며 감귤을 생산하게 하였다.

위의 인용문에서 순력 일정으로 노곤한 화자는 제주목 관아의 귤림당(橘林堂)으로 추정되는 “臥仙閣”³²⁾에서 잠이 든다. 하지만 “橘園”에서 까닭 없이

29) 주강현, 「귤의 섬_원한의 과일에서 꿈의 과일로」, 『제주 기행』, 웅진지식하우스, 2017, 136쪽.

30) 聞柑橘之貢亦有弊, 閭巷間若生此樹, 則必以湯水澆殺云, 然乎, 億增對曰, 果有此弊矣(『英祖實錄』 卷67, 英祖 24年 1月 乙未(10日)).

31) 주강현, 앞의 책, 136쪽.

32) 제주목 관아 내에는 ‘와선각(臥仙閣)’이라는 이름의 전각은 없다. 1841년부터 1843년까지 제주목사를 지낸 이원조(李源祚, 1792~1871)는 「귤림당중수기(橘林堂重修記)」에 “귤림당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하지만 없어도 좋은 것은 이미 앞 사람들의 고아(古雅)한 풍치(風致)에서 나온 것이니, (중략) 이 땅에 굴로써 국과원에 이름 붙여진 곳이 무릇 36 곳인데, 유독 이 과원만이 관아와 얼마 안 되는 거리에 가까이하고 있다. 매 가을 뒤에 서리를 맞아 빛나는 수많은 귤이 누렇게 익으면, 공무를 보던 겨를에 지팡이를 짚고 과원 안을 천천히 거닐며 노니는데, 맑은 향이 코에 와 닿고 가지에 가득한 금빛 동그런 열매는 그것이 마치 화초가 무성하게 꽃을 피우고, 초목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보는 듯하니 마음을 깨우고 정신을 상쾌하게 할 뿐만이 아니다. 곧 이 과원에 과연 이 당(堂)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당(堂)의 창건된 연월은 살필 수 없다. 계해년(1743)에 고쳐 세웠고, 기축년(1769)에 중수하였다. (중략) 이제야 앞의 귤림과 뒤의 석산이 활짝 열려 시원하고 그윽하고 조용하여 거문고를 뜯고 바둑을 둘 만하였고, 시를 읊고 술잔을 따를 만하였다. (중략) 당(堂)은 굴로써 이름 붙였으니, 그 풍치가 굴밖에 있는 것이다.”(橘林堂, 有亦可, 無亦可也, 然無而有, 既出於前人之雅致, (중략) 此土以橘名於國果園, 凡三十六所, 而獨是園在衙閣步武而近, 每秋後, 霜爛萬顆黃熟, 簿牒之暇, 負杖逍遙于園中, 清香觸鼻, 金丸滿枝, 其視花卉之芬葩, 草樹之旖, 不啻醒心而爽神, 則是園, 果不可以無是堂也, 堂之始年月不可攷, 改建於癸亥, 重修於己丑, (중략) 於是乎, 前橘林後石山, 敞爽幽靚, 可以棊棋, 可以詩酒, (중략) 堂以橘名, 而其趣有在於橘之外(이원조, 백구상 역주, 「橘林堂重修記」, 『譯註 耽羅錄-中』, 제주문화원).

“촌 비발암”이 불어오자, 제주목사로서 감귤 봉진을 책임지는 화자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깬다. “촌 비발암”은 난대성 작물인 감귤에 냉해(冷害)를 입힐 수 있다. 또한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는 바람이 강한 지역이므로, 감귤이 서로 스치거나 부딪혀서 흠집이 날 수 있다. 실제로 1750년 음력 12월 3일에는 당금굴(唐金橘)에 흠집이 있어 조정에서 작가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³³⁾ 이튿날인 음력 12월 4일에는 당금굴과 감자(柑子)의 개수가 적고 과품이 작아 작가가 처벌을 기다렸는데, 영조가 처분을 내리지 않고 회유하기도 하였다.³⁴⁾

이상과 같이, 「탐라별곡」에는 정언유 시대에 제주 백성이 겪는 문제가 다음의 몇 가지로 재현되어 있다. 첫째, 제주 백성은 이상기후와 자연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태풍·장마 → 풍해·수해 → 실농 → 기근’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제주는 왜구 방어 거점지임에도 불구하고, 실농으로 인해 군량이 부족하였다. 셋째, 제주 백성은 실농, 공납 제도 및 출륙금지령으로 인해 자산 모으기, 나아가 제주에 뿌리내리기가 어려웠다. 넷째, 제주의 인구 규모가 작고 출륙금지령이 시행된 상황에서 제주의 남성은 목자역(牧子役), 포작역(鮑作役), 선격역(船格役) 등 1인 다역(多役)을 겸해야 했다. 다섯째, 제주는 식량이 고갈되면, 조정의 구휼에만 의존해야 했다. 여섯째, 민가에서는 제주의 토산물인 감귤을 수탈의 대상으로 여기고 관리하지 않았다. 이처럼 정언

2017, 164~165쪽, ‘1842년 6월 11일’)고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해 굴림당(橘林堂)의 위치, 이름 연원, 창건 시기, 개수 시기, 중수 시기, 주변 풍경 및 기능 등을 알 수 있다. 그중 굴림당의 주변 풍경, 기능을 통해 굴림당은 제주목사가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거문고·바둑·시 등으로 여가를 보내고 술을 마시는 곳을 알 수 있다. 이에 의거하여, 이 글은 작가 정언유가 굴림당에서 보는 풍경에 대해 신선이 누워서(臥仙) 볼 만큼 아름답다고 여기고 「탐라별곡」에서 굴림당을 ‘와선각’이라고 부른 것으로 추고한다. 참고로 굴림당과 그 주변에 있는 북과원의 풍경은 『탐라순력도』(1702) 중 「굴림풍악(橘林風樂)에 그려져 있다. 한편, 이 글은 이원조의 「굴림당중수기」에 대한 한역은 백규상의 한역을 따른 것임을 미리 밝힌다.

33) 黃景源以奉常寺官員，以都提調·提調啓曰，濟州封進去十月令宗廟薦新唐金橘，今始來到，而臣與本寺郎廳進詣看品，則元數二百二十四箇內，不足之數，至於一百四箇之多，在前如此之時，不得不減數薦進，而本牧酸果不實之狀，雖已馳達，而莫重薦新之物，有此欠數不謹之患，當該牧使鄭彥儒，推考警責，何如，傳曰，允(『承政院日記』冊1063, 英祖 26年 12月 庚申(3日)).

34) 濟州防禦使狀啓，十月令宗廟薦新唐金橘柑子，既不得充數封進，果品劣少，惶恐待罪事 傳曰，勿待罪事，回諭(『承政院日記』冊1063, 英祖 26年 12月 壬戌(4日)).

유 시대에 제주 백성은 ‘자연재해·기근·여역·공납의 폐단’이라는 현실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탐라별곡」은 삼성혈 신화를 수용한다.

2) 삼성혈 신화의 수용과 변주 : 제주 백성의 방향과 가치 제시

다음은 「탐라별곡」의 45~62행 및 74~80행으로, 제2 대단락 제5 소단락의 일부에 해당한다.

슬프다 너의 艱苦 님 어이 모라리오 / 힘딛로 救濟키는 官長의게 밋여
씨나 / 건되여 디너지는 네 ㅁ음의 들러시니 / 글러스록 惕念호야 常히
心性 保全호야 / 天恩을 닛디 말고 父子兄弟 相愛호면 / 玉皇니 구버보셔
福祿을 주시니니 / 窮困을 恨치 말고 네 道理 盡心호면 / 그중의 榮華 잇
셔 貧賤을 버셔나니 / 넛 時節 도라보면 그 안니 알 일인가 / 三聖神 소스
는 後 民俗이 淳和호니 / 歲事도 豐登호고 人畜도 蕃盛호여 / 집집이 橘林
이오 곳곳이 駿馬너라 / 御乘도 예셔 나고 祭牛도 예셔 나니 / 國蓄도 盛
커니와 私屯인들 저글넉가 / 飛龍 ㄹ튼 宛馬種은 各 牧場의 가득호고 / 黃
金갓튼 洞庭橘은 公私園의 香닉 나니 / 和平호 別天地을 前古의 일너시니
/ 조흔 썩 그 세계에 너희쳐로 서리호랴 / (중략) / 노푼 峰 올너서서 塵土
을 구버보면 / 큰 바다 잔만호여 世上이 春夢이라 / 그 가온디 인는 슴람
營爲호기 可笑로다 / 山房을 볼작시면 빈 절만 基址 잇고 / 土城을 슬퍼
보면 넛 陣터 잇셔시니 / 萬事을 헤아리면 님 안니 헛되리오 / 金方慶 崔
瑩 將軍 왓던 蹤跡 그 님 알며 / 李景文 三別抄는 叛亂만 지어 잇데

작가는 1749년 음력 8월 6일에 영조로부터 유서(諭書)를 받았다.³⁵⁾ 이 유서는 조정에서 제주목사인 작가에게 제주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한다. 곧 작가를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주 백성은 작가 자신이 통치해야 할 타자(他者)인 것이다. 이에 의거하여, 작가는 화자

35) 卿受委一方體任非輕凡發兵，應機安民制敵一應常事，自有舊章慮或有予與興卿，獨斷處置事非密符莫可，施爲且意外奸謀不可不預，防如有非常之命合符無疑，然後當就命故賜押第四十二符卿其受之故諭(鄭彥儒，『迺軒集』卷坤，從政遺事，諭全羅道兼濟州牧使鄭彥儒(註：乾隆十四年八月初六日))。

의 목소리를 빌려 해방에서 만난 기민에게 그들이 겪는 가난과 고생에 공감한 후에, 제주 백성의 현실 참여와 변화를 요구하고, 자신이 조정에 곡식을 요청한 이야기를 통해 현실 정치를 환기하고 제주 백성을 교화한다.

화자가 제주 백성에게 전달한 교훈은, ① 경계하며 생각할 것, ② 심성을 보전하여 천운을 잊지 말 것, ③ 부자 형제가 서로 사랑할 것, ④ 곤궁을 한하지 말고 도리를 다할 것, ⑤ 세상사는 춘몽(春夢)과 같이 덧없으므로 다투지 말고 욕심내지 말 것³⁶⁾ 등이다. 이 교훈은 자기성찰(自己省察)과 인(仁)·예(禮)·양(讓) 등 일상에서 지켜야 할 유교(儒敎)의 도(道)로 요약할 수 있다. 화자는 이 교훈을 통해 제주 백성에게 자기수양 방식, 대인관계 방식 등을 깨닫게 함으로써, 당대의 유교 문화 코드에 부합한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제주 사회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려는 작가이자 화자의 의도가 내재한다고 하겠다.

화자는 제주 백성이 이 교훈을 실천하면, 하늘에서 옥황(玉皇)이 굽어보고 제주 백성에게 복록(福祿)을 주어 빈천(貧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진술한다. 화자의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화자가 제시한 교훈은 조물주의 시기가 심하고, 하늘이 도움을 주는 때가 그릇된 당대의 시기에 항심(恒心)을 유지하여 향산(恒産)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이처럼 화자는 만물의 조화, 하늘의 질서 회복 및 제주 백성의 향산 보장을 위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제주 백성에게 윤리의식을 부여한다.

그런데 화자는 교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넋 時節”의 모범 사례로서 삼성혈 신화를 제시한다. 이것은 제주 백성이 삼성혈 신화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한편, 카렌 암스트롱은 “신화란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곤경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신화는 사람들에게 세상 속 저마다의 위치와 진정한 방향을 찾아준다. (중략)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당시 마주한 환경과 이웃, 관습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신화를 만든 것이다.”³⁷⁾고 언술한 바 있다. 신화의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면, “한결 정교해진 당시의 종교 체계 속

36) 김아연, 앞의 논문, 2020, 112쪽.

37) 카렌 암스트롱 지음, 이다희 옮김, 앞의 책, 12쪽.

에서도 사람들은 신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³⁸⁾던 것처럼 자기성찰과 유교의 도를 강조하는 화자 또한 신화를 여전히 필요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작가가 제주 백성에게 교훈을 실천하기에 앞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제주 백성의 새로운 통찰이 필요하였는데, 이때 삼성혈 신화가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다음에서는 「탐라별곡」의 삼성혈 신화 수용과 변주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탐라별곡」에서 “三聖神 소스느 後” “歲事도 豊登호고 人畜도 蕃盛호여”는 『고려사』에 기록된 삼성혈 신화의 원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54행의 “民俗이 淳和호니”와 56~60행의 “집집이 橘林이오 곳곳이 駿馬너라 / 御乘도 예서 나고 祭牛도 예서 나니 / 國蕃도 盛커니와 私屯인들 저글넌가 / 飛龍ㄹ튼 宛馬種은 各 牧場의 가득호고 / 黃金갓튼 洞庭橘은 公私園의 香너 나니”는, 『고려사』 삼성혈 신화의 결말에 새롭게 추가된 이야기이다.

먼저, 54행의 “民俗이 淳和호니”는 “三聖神 소스느 後”와 “歲事도 豊登호고 人畜도 蕃盛호여”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작가가 사건의 인과적 질서를 재구성한 것이다. “三聖神 소스느 後” “民俗이 淳和호니” 것은, 삼성신이 탐라 사람들을 통치한 결과이다. 그런데 『고려사』 삼성혈 신화의 결말에는 삼성신의 통치 방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탐라별곡」에도 삼성신의 통치 방식은 언술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삼성신의 통치 방식은 “歲事도 豊登호고 人畜도 蕃盛호여”를 통해 역으로 추론할 수 있다. “歲事도 豊登호”려면 하늘이 도움을 주는 때를 잘 맞추어야 하고, “人畜도 蕃盛호”려면 “歲事도 豊登호”여 잉여 생산물이 있어야 한다. 하늘이 도움을 주는 때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하늘과의 소통이 가능한 삼성신이 ‘하늘의 질서에 순응’하여 제주 백성을 통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56~60행의 “집집이 橘林이오 곳곳이 駿馬너라 / 御乘도 예서 나고 祭牛도 예서 나니 / 國蕃도 盛커니와 私屯인들 저글넌가 / 飛龍ㄹ튼 宛馬種은 各 牧場의 가득호고 / 黃金갓튼 洞庭橘은 公私園의 香너 나니”는 삼성혈

38) 카렌 암스트롱 지음, 이다희 옮김, 위의 책, 91쪽.

신화의 결말을 구체적으로 보완한다. 삼성혈 신화의 원형에서 풍년을 이룬 농사는 오곡 농사였는데, 새롭게 추가된 이야기에서 풍년을 이룬 농사는 동정굴(洞庭橋) 등 감귤류를 기르는 굴 농사이다. 또한 삼성혈 신화의 원형에서 변성한 우마는 새롭게 추가된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임금이 타는 말인 어승마(御乘馬), 제사 때 희생(犧牲)으로 바치는 제주흑우(濟州黑牛), 대완마(大宛馬)로 언급된다. 이처럼 삼성혈 신화의 원형에 새롭게 추가된 이야기에서 언급된 동정굴, 어승마, 제주흑우, 대완마는 공통적으로 제주의 토산물로서 조정에 바치는 공납 물품이다.

탐라국에 인구수가 증가한 것은 굴·우마를 기를 수 있는 노동력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감귤나무를 죽였던 정언유의 시대와 달리, 탐라국 시대에는 집집마다 굴림(橘林)이 있어 황금같은 동정굴의 향내가 공과원(公果園)과 사과원(私果園)에 났다. 또한 정언유의 시대와 멀지 않던 1683년(숙종 9)에 제주에서 우역으로 소가 수만 두가 죽기도 하였다.³⁹⁾ 탐라국 시대는 이상기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로, 조물주의 시기가 극심하지 않았고 하늘이 도움을 주던 때도 잘 맞아 우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탐라국 시대에는 어승마, 제주흑우가 번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땅에 방목한 우마도 적지 않았으며, 대완마가 각 목장에 가득하였다. 화자는 탐라국의 “넋 時節”을 “和平 畵 別天地”, “조흔 썩 그 世界”로 규정하고, “넋 時節”의 탐라국 백성은 정언유 시대의 제주 백성과 달리 서러운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긴다.

실제로 작가는 봉진에 대비하고 제주 백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가파도(加波島)에 흑우장(黑牛場)을 설치하여 흑우 50수를 방목하였고 귤유(橘柚)를 기를 수 있는 과원(果園) 세 곳을 조성하였으며⁴⁰⁾ 기근·여역으로 제주의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이 조정에 구휼곡을 요청하였다. 곧 작가는 제주목사로서 제주 백성을 힘써 구제하기 위해 「탐라

39) 濟州牛疫致斃, 至於數萬頭(『肅宗實錄』卷14, 肅宗 9年 閏6月 庚戌(10日)).

40) 黑牛場於加波島, 牧牛五十首, 以備進貢(金錫翼, 『耽羅紀年』卷3, 英祖 26年條); 庚午薦授濟州牧使, 島荒方賑, 公至民不飢, 乃設黑牛牧場, 又置橘柚三園, 民便之, 辛未還(鄭元容, 『經山集』卷6, 墓碣, 族人戶曹參判(註: 彥儒墓碣銘)).

별곡」에 삼성혈 신화를 호명한 것을 넘어서서 삼성혈 신화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이를 행정 조치로 시행한 것이다. 이로써 작가는 삼성혈 신화가 정언유의 시대에 유효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가의 흑우장 설치, 감귤 과원 조성, 구휼곡 요청은 제주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교훈을 실천하여 항심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자, “和平 訢 別天地”, “조흔 썩 그 세계”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신화의 최우선적 목표는 사람들에게 본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중략) 일상생활의 규칙적인 의무를 통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⁴¹⁾라는 카렌 암스트롱의 언술과 궤를 같이한다.

이상과 같이, 「탐라별곡」의 세계 창조는 삼성혈 신화를 모티프로 수용한다. 작가는 삼성혈 신화의 원형에 새롭게 이야기를 추가하여 탐라국의 시대와 정언유의 시대를 대조한다. 그리하여 작가는 탐라국의 “넛 時節”이 “和平 訢 別天地”, “조흔 썩 그 세계”였던 이유를 밝힘으로써, 삼성신이 살던 신화 세계를 현실에 호명하여 정언유 시대 제주 사회의 문제를 신화적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삼성신이 솟아난 이후 민속이 순화하였던 때로 회귀하기 위해 작가는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제주 백성에게 교훈을 전한다.

작가이자 화자가 제주 백성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것은, 그들을 더 이상 타자로 인식하지 않고, 제주 사회의 현실을 변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자 자신과 함께 제주 사회의 미래를 탐라국의 “넛 時節”, “和平 訢 別天地”, “조흔 썩 그 세계”처럼 만들어 갈 동반자로 인식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제주 백성들이 겪는 가난과 고생은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탐라별곡」에서는 “玉皇”을 호명한다. 곧 “玉皇”은 삼성혈 신화에 등장하지 않지만,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초월적 존재이자 신의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신화적 대안인 것이다.

지금까지 이 글의 3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면, 삼성혈 신화의 원형에 새롭게 추가된 이야기는 ‘조물주의 시기가 극심하고 하늘이 도움을 주는 시기가 어긋남 → 제주 백성이 풍해·수해를 입음 → 제주에 기근·여역이 발생

41) 카렌 암스트롱 지음, 이다희 옮김, 앞의 책, 22쪽.

함 → 제주목사는 흑우장 설치, 감귤 과원 조성, 구휼곡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제주 백성은 교혼을 실천함 → 민속이 순화함 → “玉皇”이 복록을 내려줌 → 농사가 풍년이 들고 인구와 가축이 번성함 → 빈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이라는 합리적 개연성을 「탐라별곡」에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곧 삼성혈 신화의 원형에 새롭게 추가된 이야기는 「탐라별곡」이 원인과 결과에 입각하여 내적 필연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탐라별곡」은 ‘삼성혈 신화’라는 제주 전통문화의 원형에서 재탄생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탐라별곡」은 삼성혈 신화를 통해 자연재해·기근·여역에 대한 두려움, 공납의 폐단을 재해석하고 정언유 시대의 제주 백성의 일상을 한데 뒤섞음으로써, 제주 백성들을 끌어들이는 스토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탐라별곡」은 정언유 시대의 제주 백성이 직면한 현실 문제를 놓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를 화두(話頭)로 던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카렌 암스트롱은 “신화가 제대로 기능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과 마음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고, 더 알찬 삶을 살게 만든다면, 그것은 ‘유효한’ 신화다. 신화는 우리가 그 지침을 따르는 한에서만 우리를 변화시킨다. 신화는 본질적으로 안내자와 같기 때문이다. 신화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⁴²⁾고 언급한 바 있다. 카렌 암스트롱의 언술과 같이, 「탐라별곡」은 정언유 시대에 ‘자연재해·기근·여역·공납의 폐단’이라는 문제를 직면한 상황에서 제주 백성에게 삼성혈 신화를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그 시대에 일상에서 취해야 할 행동과 삶의 비전을 제주 백성에게 인지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탐라별곡」에 호명된 삼성혈 신화는 정언유 시대 제주 사회 공동체의 ‘안내자’로서 ‘유효한’ 신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에 백성을 구휼하는 과정에서 지방관들이 백성을 교화하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탐라별곡」이 제주목사 정언유의 제주 순력 경험을 재현하였다는 문학적 사실에 의거하여, 변주된 삼성혈 신화는 순력 중 해방에서

42) 카렌 암스트롱 지음, 이다희 옮김, 앞의 책, 17쪽.

구술되었다가 순력이 끝난 후 「탐라별곡」에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작가이자 화자인 정언유는 발신자이고, 제주 백성은 수신자이고,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생활상의 지침과 삶의 비전이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는 구술성, 기록성 등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그중 매체의 기록성과 관련된 「탐라별곡」은 당대인들에게 공인된 가사체 형식을 하고 있다. 가사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사 갈래에 속하는 삼성혈 신화를 수용할 수 있다. 아울러 「탐라별곡」은 음영(吟詠)이나 독서(讀書) 등 수신자인 제주 백성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변주된 삼성혈 신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변주된 삼성혈 신화는 가사의 개방성과 매체로서의 영향력에 의해 「탐라별곡」에 기록되어 당대에 ‘유효한 신화’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이 글은 「탐라별곡」의 삼성혈 신화 수용과 변주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글의 2장에서는 논의의 예비적 단계에서 『고려사』에 수록된 삼성혈 신화를 검토하였다. 삼성혈 신화는 삼성신과 제주 사람들의 기원, 제주 사람들을 둘러싼 세계를 설명하는 이야기이다. 삼성혈 신화에서 삼성신과 일본국 세 공주의 결합은 수렵문화에서 농경문화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두 문화의 결합을 통해 탐라의 생산력이 증대되었고 고대국가 탐라국의 기초를 마련하였음을 알았다. 한편, 탐라국이 고려의 군현에 편입되면서 삼성혈 신화가 육지의 천강 신화에 동화되었음을 알았다. 삼성혈 신화에는 탐라국의 건국 주체 간에 화합만 보이는데, 이를 통해 삼성혈 신화가 제주 백성의 통합·결속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살폈다.

다음으로, 이 글의 3장에서는 「탐라별곡」의 삼성혈 신화 수용과 변주 양상을 논구하였다. 그 결과, 「탐라별곡」은 정언유 시대에 제주 백성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삼성혈 신화를 호명하였음을 알았다. 이 글은 「탐라별

곡」 54행의 “民俗이 淳和하니”와 56~60행의 “집집이 橘林이오 곳곳이 駿馬
 너라 / 御乘도 예서 나고 祭牛도 예서 나니 / 國蓄도 盛커니와 私屯인들 저글
 년가 / 飛龍ㄹ튼 宛馬種은 各 牧場의 가득하고 / 黃金갓튼 洞庭橋은 公私園
 의 좃니 나니”가 『고려사』 삼성혈 신화의 결말에 새롭게 추가된 이야기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두 이야기는 「탐라별곡」이 내적 필연성을 갖추게 하여
 제주 백성에게 흡입력 있는 스토리를 제공하고, 제주 백성이 나아가야 할 방
 향과 추구해야 할 가치를 화두로 던진다. 이러한 점에서 「탐라별곡」에 호명
 된 삼성혈 신화는 정언유 시대 제주 사회 공동체의 ‘안내자’로서 ‘유효한’ 신
 화임을 알았다. 아울러 변주된 삼성혈 신화는 가사의 개방성과 매체로서의
 영향력에 의해 「탐라별곡」에 기록되어 당대에 ‘유효한 신화’로서 존재할 수
 있었음을 살폈다.

한편, 「탐라별곡」에는 제주 설화 중 삼성혈 신화 외에 삼신산 전설, 남극
 노인성 전설, 불로장생을 꿈꾼 진시황·한무제 전설, 백록담 신선 전설 등이
 수용되어 있다. 이 글은 할애된 지면이 한정된 까닭에 「탐라별곡」에 수용된
 삼성혈 신화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지역문학적 측면에서 「탐라별곡」에 수용
 된 제주 전설을 논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후속 연구로 천착
 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려시대 史料 DATABASE
(<https://db.history.go.kr/KOREA/>, 검색일: 2023.6.1.)

『高麗史』 卷57, 한국의 지식콘텐츠
(<https://www.krpia.co.kr/>, 검색일: 2023.6.1.)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승정원일기
(<https://sjw.history.go.kr/main.do>, 검색일: 2023.6.5.)

『肅宗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검색일: 2023.6.5.)

『英祖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검색일: 2023.6.5.)

金錫翼, 『耽羅紀年』 卷3.

李源祚, 백규상 역주, 『譯註 耽羅錄-中』, 제주문화원, 2017.

鄭彥儒, 『迥軒集』 卷坤: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迥軒集』 卷坤
(<http://dcollection.kmu.ac.kr/jsp/common/DcLoOrgPer.jsp?ItemId=000000007015>, 검색일: 2023.5.30.)

鄭彥儒, 「耽羅別曲」: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迥軒集』 卷坤
(<http://dcollection.kmu.ac.kr/jsp/common/DcLoOrgPer.jsp?ItemId=000000007015>, 검색일: 2023.5.30.)

鄭元容, 『經山集』 卷6,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검색일: 2023.6.7.)

2. 논저

김기영, 「〈탐라별곡〉의 문학적 실상을 살핌」, 『충청문화연구』 23,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20.

김남형, 「정언유의 「탐라별곡」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3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김새미오, 「「탐라별곡」에 표현된 제주목사의 책무와 그 시선」, 『제주도연구』

- 54, 제주학회, 2020.
- 김아연, 「탐라별곡」에 나타난 제주사회 문제의 양상과 대응, 『용봉인문논총』 56,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 _____, 「영조 국장과 이정무의 「달고사」, 『영주어문』 54, 영주어문학회, 2023.
- 김오진, 『조선시대 제주도의 이상기후와 문화』, ㈜푸른길, 2018.
- 박수진, 「〈탐라별곡〉에 드러난 제주의 문화 공간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32, 한국시가문화학회, 2013.
- 서주연, 「탐라별곡」의 공간의식에 따른 서술 특징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168, 국어국문학회, 2014.
- 송효섭, 「서문」, 『뫼토세미오시스-매체, 신화, 스토리텔링』, 한국문화사, 2019.
- 안혜진, 「18세기 가사를 통해 본 경향사족간 의식의 거리」, 『한국고전연구』 15,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의 작품세계와 시대적 변모양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윤석창, 「「탐라별곡」 연구」, 『명지어문학』 14, 명지어문학회, 1982.
- 윤치부, 「〈탐라별곡〉의 구성과 표현」, 『논문집』 24, 제주교육대학교, 1995.
- 이명현, 「《신과 함께》 신화편에 나타난 신화적 세계의 재편-신화의 수용과 변주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40, 한국구비문학회, 2015.
- 이태진, 『새韓國史-선사시대에서 조선후기까지-』, 까치, 2012.
- 이형대, 「17·18세기 기행가사와 풍경의 미학」, 『민족문화연구』 4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 정진희, 「조선초(朝鮮初) 제주(濟州) 〈삼성신화(三姓神話)〉의 문자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 조동일, 「[특집] 탐라국 건국서사시를 찾아」, 『제주도연구』 19, 제주학회, 2001.
- 주강현, 『제주 기행』, 웅진지식하우스, 2017.
- 천혜숙, 「설화의 이해」,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2쇄), 도서출판 월인, 2005.
- 카렌 암스트롱 지음, 이다희 옮김, 『신화의 역사』(11쇄), 문학동네, 2021.
- 허남춘, 「제주 신화 속의 해양교류와 해양문화」, 『탐라문화』 5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

3. 기타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jeju>, 검색일: 2023.6.2.)

<Abstract>

Acceptance and Variation of Samseonghyeol Myth in Tamrabyeolgok

Kim, A-Yun

Jeong Eon-Yoo(鄭彦儒, 1687~1764), who served as a local governor and defense officer, composed the Travel Gasa Tamrabyeolgok(耽羅別曲) based on his experience of inspection tour of Jeju Island. The gist of this paper, which has examined the acceptance and variation of the Samseonghyeol myth of Tamrabyeolgok from the perspective of 'presentation of mythology,' is as follows.

This paper has understood that the author called the Samseonghyeol myth in Tamrabyeolgok as an alternative to the problems faced by the Jeju people at the time, that is, natural disasters, famine, epidemic disease, and public tribute. By the way, this paper has found that the 54th lines and 56th to 60th lines of Tamna Byeolgok were newly added to the end of the Samseonghyeol myth of Goryeosa(高麗史). This paper has explored that the two stories provide a suction story to the Jeju people by making Tamrabyeolgok have internal inevitability, and throw the direction and value that the Jeju people should pursue as a topic. In this sense, this paper has determined that Samseonghyeol myth was called to Tamrabyeolgok was a 'effective myth' as a guide of the Jeju social community during the Jeong Eon-Yoo era. In addition, this paper has examined that variation on Samseonghyeol myth was being as a 'effective myth' which was recorded Tamrabyeolgok by the Gasa's openness and the influence of media.

* Key Words: Tamrabyeolgok, Inspection Tour of Jeju Island, Samseonghyeol Myth, Acceptance, Variation

· 논문투고일: 2023년 6월 11일 · 심사완료일: 2023년 7월 13일 · 게재결정일: 2023년 7월 25일